

주말은 '雨요일'...농민·지자체 울상

야속한 가을비



벼수확 농민들

태풍에 침수 논바닥 안 말라 콤바인 작업 못해 수확 지연



가을축제 지자체

주말마다 비...관광객들 줄어 1년 공들인 노력 허사 우려

'야속한 가을비'. 그것도 주말만 골라 내리는 가을비가 알뜰기만 하다. 본격적인 벼수확에 나선 농민들과, 가을 축제에 나선 지자체들이 속절없는 가을비에 울상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까지 벼 수확 실적은 4만2000ha로 전체 16만 6000ha의 4분의1을 마친 상태다. 잦은 비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원로시점이 늦어져 10월 말이나 수확을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전남 동부권의 3008ha 가운데 일부는 씩이 돌아오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박용철 팀장은 "침수돼 벼 쓰러짐 피해가 있는 지역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벼 이삭이 모두 말라야 콤바인 작업이 가능해 전반적인 수확



광주호 달빛 가을 음악회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충효동 호수생태원에서 '제1회 광주호 달빛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감상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부터 계속된 주말 가을비에 지자체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 9월 3차례, 10월 2차례 등 주말마다 비가 내리면서 가을축제를 찾는 외지인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추어의 7080 총장축제를 비롯해 무등올림픽축제, 광주국제교류의 날 등 광주에서 열린 축제나 행사가 모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을 맞아 방문객의 발길이 북적거리를 기다렸던 전남의 각 시·군도 비를 원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장흥군 안양면에서 열리고 있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함께 이달 초 2016 광양전어축제, 곡성심청축제, 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 14~16일 열린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순천 팔마문화제, 화엄음악제, 낙안 민속문화축제 등

도 곳은 날씨 때문에 관계자들은 어두운 표정이다.

전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을비가 주말에만 많이 내리면서 지역민의 기대가 높았던 축제가 빛이 바랜 것은 사실"이라며 "외지인 방문을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시교육청에 300억 지원...누리예산 타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이 보육료 걱정을 덜게 됐다. 광주시가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결성, 해결의 길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 형편 등으로 광주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미뤄왔던 학교용지부담금 300억원을 지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하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

액 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교육청이 광주에서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은 1075억이다. 지난 1999년부터 쌓인 금액이지만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2024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에 취약하지만 여태껏 주지 않고 있던 지방교육세보전금 67억원도 주기로 했다.

광주교육청은 광주시로부터 367억원을 받으면 예비비 175억원 등 자체 예산을 더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70억원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9

월분까지 광주교육청 대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대납(代納) 형식으로 지급해왔다. 광주시와 교육청의 합의로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형평성'을 들어 삭감됐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80억원도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국가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뒤늦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자체 예산으로 지급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치 투쟁을 벌이다 원칙·실리를 모두 잃고 결국 '백기 투항(?)한 셈'이 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지을기자 dok2000@

알립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11월 12일(토) 오후 2시~3시
문화전당 일원, 5·18광장 출발

광주·전남 지역의 명품코스를 선정해 가을 걷기대회를 개최해 온 광주일보사가 올해는 '2016 광주 프린지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돼 볼거리, 즐길거리와 힐링이 충만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문화전당 마실길을 걸으면서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념품과 현장 맞는 문화전당 구성구석을 둘러보면

서 도심에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올 행사는 금남로 일원에서 열리는 거리축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돼 볼거리, 즐길거리와 힐링이 충만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문화전당 마실길을 걸으면서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념품과 현장 맞는 문화전당 구성구석을 둘러보면

- 일시 : 2016년 11월 12일(토), 오후 2시~3시
-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금남로 5·18민주광장 출발
- 주최 : (사)아시아문화, 광주일보사
- 후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트렉스타
- 참가비 : 무료
- 지급품 : 기념품·행운권·간식·생수
- 행사장 : 현장 주점, 접수지에 한함 (전자제품·트렉스타 상품권 등)
- 주요 행사 내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버스킹 공연 등
- 접수 및 문의 : 사전 전화 접수, 선착순 300명, 062-220-0555

光州日報社

주형환 산자부 장관 "전기요금 누진제 연내 개편"

한빛원전 등 주변 단층 재조사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누진제 개편안을 언제 마련해서 시행할 것인가'는 새누리당 김경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주 장관은 누진제를 꼭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방식이 원격 전력 검침·관리 장치인 스마트미터(AM)를 이용하는 것인데,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전

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지난 14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주 장관은 "연말까지 (한빛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 단층 재조사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광주사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42회 총동문체육대회

- 일시 : 2016. 10. 22(토) 09:00
 - 장소 : 모교 운동장(풍향대)
 - 전화 : 062) 520-4555
-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우흥민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제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화제정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